

“우리사회 단면의 아픔 공감하는 영화 만들고 싶어요”

동강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이한규씨·66세 만학도 2025 광주영화제작지원사업 독립단편부문 선정

“사회문제를 다룬 작품을 만들고 싶었죠. 미디어 영향력을 통해 우리사회 단면의 아픔을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동강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이한규씨(2년·사진)는 지난 4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광주영상영화진흥지원 광주영화제작지원사업’의 독립단편 부문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광주 영화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문화자원의 대중화 기여를 위해 광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독립영화 제작을 지원한다. 이 씨는 영화제작에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씨의 작품명은 ‘로프(rope)’다. 너무 쉽게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낙담함을 꼬집는 내용이다.

그는 “‘로프’는 개인이나 조직 내 생존의 줄을 의미한다. ‘로프’를 너무 쉽게 잘라내는, 특히 조직 내에서 해고나 갑질 등으로 붕괴하는 사회 문제를 우리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지는 스토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58년생으로 올해 66세다.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높아 지난해 동강대 미디어콘텐츠학과 24학번으로 만학도가 됐다.

그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다큐멘터리 작품에도 도전했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대학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이전에도 수많은 공모전에 참여해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2020년 ‘제15회 정음 전국실버영화제’에서 ‘마지막 만남’이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정음 전국실버영화제는 국내 최초 노인영화제다.

또 2021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 공모전에서는 다큐멘터리 ‘설국 하늘다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KBS ‘시청자가 만든 TV프로그램’에서 ‘설국 하늘다리’와 ‘발로 쓴 수필, 무릎길 518’이라는 작품이 함께 소개됐고 광주MBC 등에서도 다큐멘터리 11편이 방송됐다.

이씨는 상반기 내에 ‘로프’를 ‘크레크 인’ 할 계획이다.

그는 “‘로프’ 준비 당시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촬영 때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 학생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개인 실력 뿐 아니라 학교 위상도 높아지는 좋은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했다. 이씨는 “작품이 마무리되면 여러 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시리즈로 영화를 만들어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강대 미디어콘텐츠과(학과장 이상민)는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특히 ‘퍼스널 브랜딩(Personal Branding)’을 활용한 개인 미디어 분야가 각광받으면서 사회 트렌드에 발맞춘 경쟁력 있는 학과 운영에 나서고 있다.

소니 FX3 4K 시네마 카메라, 전용 I-Mac 그래픽 실습실, 광주전남 유일의 비주얼스튜디오 등 전남권 최고의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광주 유일의 영화교육과정 학과로 △AI 콘텐츠제작 △1인크리에이터 △언리얼엔진5를 포함한 모션그래픽 교육과정 등을 통해 관련 취업 분야에서도 명문학대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PEOPLE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담양군농민회, 통일쌀 모내기 행사 남북 화해 염원·풍년 기원

담양군농민회는 최근 월산면 일원에서 남북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2025 담양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장병영 담양군의회 의장,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 지역 농민단체와 농민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모내기 작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통일쌀 모내기 행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국 단위 사업으로, 각 지역 농민회가 쌀을 재배해 수익금을 남북통일 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군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이 사업을 2022년부터 재개해 매년 이어오고 있다.

최정진 농민회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에서, 평화와 상생의 씨앗이 통일과 풍년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원 군수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얼어붙은 남북관계에도 따뜻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통일에 대한 지역사회의 염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용 기자 jwnews@gwangnam.co.kr

추성문화예술재단

초대 훈장 김병만 교수 위촉

추성문화예술재단은 담양의 자연·인문·정원·예술자산을 토대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려갈 지식공동체 ‘담양미래학당’의 초대 훈장으로 김병만 교수(사진)를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담양미래학당은 ‘세대가 공감하는 열린 배움의 마당’이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자율적 학습·실천 공동체다.

김 초대 훈장 위촉과 함께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담양미래학당은 다음달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정기학당을 열어 명사 초청 강연과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매주 목·금·토요일에는 총 15개 분야의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강사진은 모두 30년 이상 현장에서 활동한 명인, 명장, 명창. 작가 등 추성문화예술재단 소속 전문가들로, 전 강좌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한다.

나향도 추성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모든 세대가 자유롭게 상상하고 함께 토론하며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담양미래학당의 핵심이다”며 “작은 실천이 모이는 로컬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조선이공대-광주고용센터 ‘AI 활용 취업특강’

생성형 인공지능 구직 활동 접목 실전 전략 지원

조선이공대학교 대학원자리플러스센터와 광주고용센터는 지난 18일 광주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마트한 취업 준비’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조선이공대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 등 총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채용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구직 활동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주제로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Chat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대비 전략 등 실제 구직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실용성 강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AI 도구를 직접 활용해 자기소개서 문장을 수정하고, 예상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해보며, 실질적인 활용법을 익혔다.

이와 함께 윤리적인 AI 활용 가이드라인도 소개돼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건전한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에도 기여했다.



조순계 총장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특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광주고용센터와 협력해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이공대 대학원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 탐색부터 설계, 취업 역량 강화, 실전 취업까지 단계별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 취업 지원 거점으로, 지역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취업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학교 도서관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 광양지역 공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방문하는 현장 연수를 실시했다.

광주교육청, 학교도서관 담당자 현장 연수 성료

광양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방문·우수 사례 공유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은)이 최근 학교 도서관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 광양지역 공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방문하는 현장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도서관을 학생의 자율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광양광명도서관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학생 맞춤형 독서 활동, 공간 활용 방식 등 다양한 우수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봤다.

이와 방문한 광양백운중학교와 광양중진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교사와 사서가 협력해 운영하는 융합 독서교육과 학생 참여 중심의 공간 조성 사례도 공유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 김광희 광주중상중학교 사서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 아이디어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우리 학교에서도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풍부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은 교육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수와 교류 기회를 통해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 성장하는 학교도서관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

사학연금, 템플스테이서 임직원 소통 워크숍

송광사와 힐링 프로그램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임직원들의 소통과 심신 치유를 위해 안주군 일대의 송광사와 소양고택에서 템플스테이와 북토크를 결합한 ‘서사(書事)원주’ 체험형 소통 워크숍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템플스테이와 북토크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해 참가자들이 일상의 긴장 완화와 치유는 물론 독서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사학연금은 이번 행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안주 송광사와 템플스테이 이용 지원 및 사학연금 가입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지원 △전통적 정신문화 체험을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 △템플스테이 홍보 협력 등이다.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송광사는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빛꽃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어 심신이 지친 직장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치유를 얻기에 적합한 곳”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분이 내적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직원들에게 체험형 소통과 독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많은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게시판

-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집센터. 문의 062-374-2818.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말씀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동행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안파 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ონსე (음력 5월 29일)

- 48년생 아랫사람에게 충고 해주는 날
- 60년생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라
- 72년생 이성 때문에 관제구설 주의
- 84년생 분주한 가운데 일이 성사된다
- 96년생 사교성을 발휘하니 즐거움이 많은 날
- 51년생 지인의 협조로 일의 성취된다
- 63년생 승진 생각이 많으니 말 실수 조심
- 75년생 짜증은 이별수 유발할 수 있다
- 87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기분 전환이 필요
- 99년생 독선적인 태도 이성 문제 악화
- 54년생 금은 보화는 마구 쓰면 없어진다
- 66년생 상사에게 인정 받는다
- 78년생 옛 인연이 크게 도움이 될 것
- 90년생 동풍에 배워 부패신고 돌아 오네
- 49년생 가계 경제 기를지고 흑자
- 61년생 새로운 구상은 지금 시작해야 된다
- 73년생 직장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85년생 배우자에게 죽음을 피하라
- 97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즐겨라
- 52년생 자녀 일로 신경이 예민한 하루
- 64년생 새로운 설계로 내일 기약할 때
- 76년생 용이 여의주 얻고 범이 바람을 타는 날
- 88년생 중요한 말은 길게 듣지 않아도 된다
- 55년생 소비 지출이 많은 날
- 67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 79년생 새 이성과 알찬 데이트 하는 날
- 91년생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하라
- 58년생 물에 빠져 구해주시니 보따리 달란다
- 70년생 꼭 들어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한다
- 82년생 공가 사는 엄격히 구분 되어야 옳다
- 94년생 무리한 진행은 금전 지출 크다
- 50년생 운수가 대길이라
- 62년생 토지에 큰 기대하지 말라
- 74년생 금전 문제가 원할지 못하다
- 86년생 믿는 지인일 수록 말 조심
- 98년생 우정에 저돌적인 고독해 질것
- 53년생 친구와 함께하면 운수 좋은 날
- 65년생 항상 내일을 준비하라
- 77년생 친지 모여 단합대회 하는 날
- 89년생 지인조연으로 일이 풀린다
- 56년생 충동을 참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 68년생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비밀 지키라
- 80년생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 92년생 예상 밖의 거래 관계가 호전
- 59년생 달갑지 않은 사람이 찾아온다
- 71년생 매매 계약은 다음으로 연기하라
- 83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하라
- 95년생 이성 생각에 신체 리듬 깨진다